

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책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김선애* · 문승태^{b**}

^a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BK21플러스 연구교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b순천대학교 농업교육과 교수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국문요약

본 연구는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를 진단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호남 지역 75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22개 정책에 대한 5점리커트척도 만족도의 평균은 2.71~3.0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순서형 로짓모형 분석결과 농업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농업관련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정책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주작목이 수도, 전작, 축산, 원예인 농가는 타작목 재배 농가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의 위치가 산간이나 준산간 지역인 경우 또한 만족도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농업·농촌 정책 가운데 농업인이 선호하는 정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고 인지하는 정책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 친환경농업,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이 선호하는 직접지불 정책은 농업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되지 않을 수

* 제1저자(김선애) 전화: 02-3290-3485; email: sakim@korea.ac.kr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 교신저자(문승태) 전화: 061-750-3356; email: dream@sunchon.ac.kr
540-950)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농업교육과

있으므로, 농업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을 개선 할 수 있는 정책이 농업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도농간 소득 격차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되었다.

주요어: 농업·농촌 정책, 만족도, 순서형 로짓모형

1. 서론

농업·농촌 정책은 농업자체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주민의 삶과 생활양식, 정주기반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변화된 농촌의 현상은 새로운 정책을 요구함으로써, 정책과 현상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고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현실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을 입안할 수 있고,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변화될 농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농업·농촌 문제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 정부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고, 특히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요자 요구에 정책 보다는 정책당국이 의도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정책들이 많이 수립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현상, 혹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수립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정책은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농업인, 농촌주민의 의사와는 매우 다를 수 있으며,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실행되고 있는 농업·농촌관련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와 선호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농업·농촌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현재 중점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주요 농업·농촌관련 정책은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농지은행 사업, 영농규모화 사업,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도입, 농업경영체 등록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이다(후술하는 분석대상 농업·농촌 정책 참조).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중점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를 진단하고, 주요 요인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규명하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제시하며, 농업인의 특성에 따른 선호하는 농업·농촌 정책을 파악하여 수요자 입장에서의 농업·농촌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분석 모형

2.1. 선행연구

농업·농촌 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살펴보면, 김정태와 배용규(1997)는 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농산물 가격정책, 유통구조 개선 정책, 농민교육,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정책에 대해 농민, 공무원, 학생을 대상으로 5점 리커트 척도(Likert-Scale)를 이용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농촌사회정책, 농산물 가격 및 유통정책, 농민정책, 생산정책으로 분류하여 농민과 학생, 공무원 집단 간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정책 체계적 요인, 농민정책요인, 농업생산 정책요인에 대해서는 불신정도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농민의 불신 정도가 학생과 공무원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사회정책에 대해서는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와 배용규의 연구는 농업인

의 정책 만족도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학생 등의 의견을 농업인의 만족도와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농업인의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만족도가 조사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박은식 외(2007)는 농촌리더십 교육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국 마을의 리더 가운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리더십교육을 받은 217명을 우편 및 면접조사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리더십 교육의 도움정도, 만족도, 리더십 태도변화 정도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의 도움정도는 심화교육을 수료한 응답자의 도움정도가 심화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응답자의 도움정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더십 교육 수료 후 태도변화는 교육 참여 횟수가 5회 이상으로 많은 경우 태도변화 정도도 컸으며,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보다,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 태도변화 정도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교육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학력, 교육 참여 횟수 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응답자의 관광마을 참여기간에 따라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박은식 외의 연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교육의 만족도와 효과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교육 참여 횟수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결론을 유도한 데서 착안하여, 농업관련 교육 참여 횟수가 농업, 농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김동원과 박혜진(2009)은 농업정책 방향에 대한 만족도를 전문가, 도시민, 농업인에게 설문조사하였는데 전문가나 도시민에 비해 농업인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게 한 결과 식품산업육성, 농촌생활 및 복지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많은 반면, 농가경영안정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농업인은 매우 적었다. 농업인과 전문가

그룹 모두 과반수 이상이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 관심과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5개 정책을 대상으로 투자 확대 또는 축소 분야를 설문한 결과 농업인은 연금지원, 직접지불제, 시설현대화 등을 투자 확대 분야로 지적하였다. 여덟 개 분야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정책에 대해서 농업인은 농가소득 안정과 생활여건 개선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원과 박혜진의 연구는 농업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전문가, 도시민, 농업인의 3개 그룹의 의견으로 진단한 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농업인이 확대 희망하는 정책을 진단하여 농업정책을 수요로 하는 농업인의 의견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박경옥과 이하나(2009)는 농촌활성화사업에 참여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유형에 따라 사업 참여도와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경기도 여주군의 4개마을 10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분석한 결과, 집중형 마을 주민들의 사업 만족도가 분산형 마을 주민들의 사업 만족도 보다 자연환경, 공간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등 연구 대상 항목 전체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인구학적 요인 가운데는 학력이 높을수록 사업 만족도가 높았으며, 50대 이하 연령층의 만족도가 50대 이상 연령층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박경옥과 이하나의 연구는 농업·농촌 정책 가운데 하나인 농촌활성화사업의 만족도가 마을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규명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손은호와 박덕병(2009)은 농촌관광 개발 사업의 각 요인들이 지역주민의 농촌관광 개발사업의 전체적인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기 위해 348개의 농촌관광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요인들은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해당 정책

의 경제적 측면의 파급효과가 지역 주민에게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손은호와 박덕병의 연구는 농업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허주열과 이성근(2009)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북지역 29개 권역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및 일반주민 1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에 비해 일반 주민들은 사업 진행 인지시기가 늦고, 교육활동 참여도가 낮으며, 예비계획서 작성,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등에 대해 참여도가 낮고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면에서는, 사업 구축단계, 준비단계는 높게 나타났으나, 계획단계는 낮게 나타났다. 일반주민의 만족도는 추진위원들의 만족도보다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일반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허주열과 이성근의 연구는 농업·농촌 정책 추진에 있어 참여도의 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홍은파(2010)는 여성농업인 영농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료 1,500개를 이용하여 농축산물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노동자 효과와 투입재배분효과를 추정하였다.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 최소제곱추정법(OLS), 토빗(Tobit) 모형을 사용하여 일차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헤크만(Heckman)의 2단계 추정법과 도구변수 추정법을 사용한 분석 결과, 여성농업인의 정규교육과 영농교육은 농업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밝혔다. 정규교육과 영농교육의 상호관계는 대체관계에 있는 것을 밝힘으로써 저학력 농업인력에 대해 영농교육을 실시한다면 정규교육 수준을 보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홍은파의 연구는

농업정책 추진에 있어 영농교육이 학교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효력이 있을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Orazem 외 (1989)는 농업인의 재정상태, 농업규모, 농업유형, 교육정도, 농사경력은 조사대상 4개의 농업관련 정책에 관한 농업인의 지지도의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4개의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을 “반대”, “무관심”, “지지”로 응답하게 한 후, 대학교육, 고등학교 학력이하, 농사경력, 작물재배농가, 축산농가, 유우농가, 농가재정상태, 농지면적, 소유농지 비율, 농외소득, 18세 이하 자녀수, 농가자산 등을 설명변수로 한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을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설명변수의 단위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반응을 탄력성으로 계측하여 단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의 지지도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Orazem의 연구는 영농규모, 농업유형, 교육정도, 영농경력이 농업정책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2.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사회경제적·인구통계학적 요인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교차분석, 분산분석,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경영학적·사회경제적·인구통계학적 요인의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하기 위해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분석하였다. 순서형 로짓 모형은 농업인들의 농업·농촌 만족도인 5점 리커트 척도(Likert-scale)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경영학적,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설명변수로 하여,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농업인의 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식(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1) \quad Y^* &= x' \beta + \varepsilon \\
 Y &= 1 \text{ if } Y^* \leq \mu_1 \\
 &= 2 \text{ if } 0 < Y^* \leq \mu_2 \\
 &= 3 \text{ if } \mu_2 < Y^* \leq \mu_3 \\
 &\quad \vdots \\
 &\quad \vdots \\
 &= J \text{ if } \mu_{J-1} < Y^* \leq \mu_J
 \end{aligned}$$

여기서 Y^* 는 관찰 불가능한 응답자의 만족도이며, 실질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Y 로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사이에 선택되는 응답자의 만족도이다. 응답으로 나타난 만족도(Y)는 실제 만족도(Y^*)가 경계값(threshold) μ 의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μ 는 경계값으로 β 와 함께 추정되며, 응답자의 만족도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 x 와 관측 불가능한 변수 ε 에 의해 결정된다. Y^* 는 잠재 변수(latent variable)이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을 추정할 수 없다. 그러나 순서형 로짓에서는 오차항 ε 의 분산이 $\text{Var } \varepsilon|x = \pi^2/3$ 으로 가정함으로써 Y^* 의 분산은 추정 가능해진다.

그런데 잠재변수가 연속변수일 때 Y^* 는 식(2)와 같이 추정될 수 있다.

$$(2) \quad Y_i^* = \sum_{k=1}^k \beta_k X_{ki} + \varepsilon_i = Z_i + \varepsilon_i$$

순서형 로짓모형에서는 식(2)의 일부를 추정한다.

$$(3) \quad Z_i = \sum_{k=1}^k \beta_k x_{ki} = E(Y_i^*)$$

잠재변수 Y^* 는 교란항 때문에 Z 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다. k 개의 β 와 $J-1$ 개의 μ 는 추정될 parameter이며, 각 표본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할 수 있다.

$$Z_i = \sum_{k=1}^k \beta_k x_k$$

그리고 $J-1$ 개의 추정된 경계값(μ)을 이용하여 Y 가 특정한 값 예를 들어 3을 취할 확률(probability)을 아래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P(Y=1) = \frac{1}{1 + \exp(Z_i - \mu_1)}$$

$$P(Y=2) = \frac{1}{1 + \exp(Z_i - \mu_2)} - \frac{1}{1 + \exp(Z_i - \mu_1)}$$

$$P(Y=3) = \frac{1}{1 + \exp(Z_i - \mu_2)}$$

순서형 로짓모형은 교란항이 로지스틱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잠재변수 Y^* 를 추정할 수 있다.

순서형 로짓 모형의 해석은 한계효과나 odds ratio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한계효과가 독립변수들을 평균으로 상정하고, k 번째 독립변수 x 의 단위변화에 따른 Y 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계산하는 반면에 odds ratio는 Y 가 어떤 값 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즉 누적확률(cumulative

probabilities)을 계산한다. Y 가 어떤 값 m 보다 작거나 같을 누적확률은 다음과 같다.

$$(4) \quad \Pr(Y \leq m|x) = \sum_{k=1}^m \Pr(Y = k|x) \text{ for } m = 1, j-1$$

주어진 x 에서 Y 가 m 보다 클 경우에 대비한 m 이거나 m 보다 작을 확률은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5) \quad \Omega_m(x) = \frac{\Pr(Y \leq m|x)}{1 - \Pr(Y \leq m|x)} = \frac{\Pr(Y \leq m|x)}{\Pr(Y > m|x)}$$

순서형 로짓모형에서 응답자의 응답이 m 보다 클 경우에 대비한 m 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는 식(6)과 같다.

$$(6) \quad \Omega_m(x) = \frac{\Pr(Y \leq m|x)}{\Pr(Y > m|x)} = \exp(\mu_m - x\beta)$$

위식에 \log 를 취해 다음 결과를 얻는다(Long, 1997).

$$\ln \Omega_m(x) = (\mu_m - x\beta)$$

3. 설문조사 및 분석 대상 정책

3.1. 설문조사

농업인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정책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9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추출방법은 농업유형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임의표집 하였으며,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각 지역의 작물유형을 파악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에 연구원들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8페이지로 구성되었으며,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 농가경제 및 농업경영 여건, 사회경제적·인구통계학적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가 특정 정책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경우를 대비해 부가 설명을 함으로써 응답내용이 보다 정확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0년 8월 12일부터 9월 10일까지 1개월간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지역 농업인 900명의 설문조사 결과 795부의 설문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나, 그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결측치가 있는 설문지 45부를 제외한 총 750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농업인의 특징을 보면 남자가 80.2%, 여자 19.2%로 나타났다. 연령은 40세 이하 16.8%, 41~50세 31.9%, 51~60세 36.3%, 61세 이상 15.1%로 구성되었으며, 거주지역은 전남 50.4%, 전북 49.6%로 나타났고, 수도작 농가가 46.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평균 영농경력 18.5년, 평균 소유 농경지 면적과 경작면적은 각각 2.4ha, 2.8ha였다. 분석대상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액에 가장 높은 작물은 수도작 46.7%, 과수 11.5%, 축산 10.4%, 특용작물 9.3%, 노

지 전작물 8.4%, 시설작물 7.7%, 기타 6%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분석대상 농업·농촌 정책

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22개 농업·농촌 관련 정책이 선정되었다(Table 1). 이 가운데 13개 정책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의 정책포커스(www.mifaff.go.kr)에 수록된 정책들로 조사 시점 당시 농식품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정책들이다. 정책포커스의 내용에는 농업분야 11개 정책, 농촌분야 8개 정책, 식량분야 2개 정책이 있었으나, 이 가운데 농업인들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정책만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면 농업분야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기본계획수립 등과 같은 정책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농업분야 정책 11개 가운데 선정된 정책은 5개 정책으로 농지은행사업,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이다. 식량분야 정책인 RPC 유통기능 활성화 및 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친환경농업 2개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농촌분야에는 총 8개 정책이 있는데 이 가운데 농어촌 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제외한 6개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농촌분야 6개 정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도농교류활성화, 농업인 복지 증진, 여성농업인 육성, 경관보전 직불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의 정책홍보 내용에 수록된 정책 외에 김동원 외(2009)의 연구에서 농업인과 전문가에게 설문한 농업·농촌 관련 정책 15개 가운데 본 연구에서 이미 선정된 정책과 중복된 정책은 제외하고 9개 정책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정책은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기계화·시설현대화 지원, 전문농업인 인력육성,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농산물 안전성·고품질화 지원, 농

산물 산지 유통혁신, 재해보험 등 경영안정 지원,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증대, 교육여건 및 의료서비스 확충 등이다.

〈Table 1〉 분석 대상 농업·농촌 정책

농업·농촌 정책	
정책포커스 수록 정책	<p>1. 농지은행 사업 농지 매매 및 농지임대차를 희망하는 사람, 경영위기 농업인, 귀농·창업 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지임대나 매도를 수탁관리 하는 사업.</p>
	<p>2.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쌀 경영체(1.5ha이상 쌀 전업농 및 육성대상자 등, 2ha이상 일반농, 영농법인), 창업후계농, 1ha이상 밭농가를 대상으로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및 교환·분합을 통해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사업.</p>
	<p>3.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 농업인,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어업인의 기술, 경영 능력, 선진 기술 및 경영 역량을 갖춘 정예인력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p>
	<p>4.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비, 농어업소득 안정화를 통한 전업 농 육성을 위해 직접지불을 통한 소득보전 사업. 품목별 소득보전 직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자 시행함.</p>
	<p>5.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쌀값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 전국 평균 쌀 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p>
	<p>6.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초 기반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농촌 활성화를 모색하는 사업으로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 인구유치, 지역역량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p>
	<p>7. RPC유통기능 활성화 및 쌀 브랜드 육성사업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대상으로 쌀 수입 개방 확대, 소비자 요구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 쌀 유통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RPC 규모화 및 조직화를 통해 안정적인 쌀 산업 기반 구축.</p>
	<p>8.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하며,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추구함. 친환경농업 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p>

정책포커스 수륙 정책	<p>9. 도농교류 활성화 농어업인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활력 회복 및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 촉진 도모. 농어촌 축제, 도농교류 정부포상,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1사1촌 운동 등이 포함됨.</p>
	<p>10. 농업인 복지증진 농림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p>
	<p>11. 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지원하는 사업.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함.</p>
	<p>12. 경관보전 직불제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p>
	<p>13. 농어촌 주택개량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이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p>
기타 농업· 농촌 정책	<p>14. 농업생산기반정비 15. 농업기계화·시설현대화 지원 16. 전문농업인 인력육성 17.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18. 농산물 안전성·고품질화 지원 19. 농산물 산지 유통혁신 20. 재해보험 등 경영안정 지원 21. 농촌관광 등 농의소득 증대 22. 교육여건 및 의료서비스</p>

4. 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책 만족도

4.1. 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책 만족도

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리커트척도(Likert-Scale: 매우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족=2, 매우 불만족=1)로 평가되

었다. 리커트 척도 평균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난 정책은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농지은행사업, 친환경농업이었으며, 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재해보험 등의 경영 안정 지원, 교육여건 및 의료서비스 확충, 경관보전 직불제, 농촌관광을 포함한 농외소득 증대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22개 정책의 만족도 평균에서 3.0이상을 보인 정책은 3개 정책뿐이었으며, 나머지 19개 정책은 3.0이하로 나타나, 대부분의 정책이 농업인들에게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응답자의 46.5%를 차지하는 수도작 농가와 타작목(특용작물, 축산, 시설작물, 과수, 노지 전작물, 기타작물)재배 농가의 정책 만족도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리커트 척도의 평균값을 t-검정하였다(Table 2). 조사대상 22개 농업·농촌 정책 가운데, 두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낸 정책은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을 포함한 6개 정책이었으며, 농지은행사업을 16개 정책에 대하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작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은 타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비해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친환경농업, 농업인 복지 증진, 경관보전 직불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작 농가는 그 외의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보다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도작 농업인의 정책 만족도는 타작목 재배 농업인의 만족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수도작 농가에게 적용되는 농업·농촌 정책이 부족했거나, 적용되는 정책이라도 수도작 농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Table 2〉 농업유형에 따른 농업 · 농촌 정책 만족도

항 목	평균	유형	빈도	평균	표준 편차	t
농지은행사업	3.02	수도작	350	3.00	.97	-.56
		그외	400	3.04	.83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3.08	수도작	350	3.00	.97	-2.29*
		그외	400	3.16	.93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	3.09	수도작	350	3.07	.97	-.57
		그외	400	3.11	.97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2.83	수도작	350	2.73	1.02	-2.36*
		그외	400	2.90	.94	
쌀 소득보전 직불제	2.89	수도작	350	2.85	1.11	-1.06
		그외	400	2.93	1.03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86	수도작	350	2.81	.95	-1.39
		그외	400	2.91	.96	
RPC유통기능 활성화 및 쌀 브랜드 육성사업	2.88	수도작	350	2.82	1.02	-1.52
		그외	400	2.93	.94	
친환경농업	2.93	수도작	350	2.86	.98	-3.18**
		그외	400	3.09	1.00	
도농교류활성화	2.91	수도작	350	2.86	.93	-1.32
		그외	400	2.95	1.01	
농업인 복지 증진	2.83	수도작	350	2.73	1.06	-2.28*
		그외	400	2.90	.99	
여성농업인 육성	2.82	수도작	350	2.77	.96	-1.12
		그외	400	2.85	.98	
경관보전 직불제	2.76	수도작	350	2.69	1.03	-2.71**
		그외	400	2.88	.94	

농어촌 주택개량	2.85	수도작	350	2.87	.91	.53
		그외	400	2.83	.96	
농업생산기반 정비	2.87	수도작	350	2.83	.87	-.85
		그외	400	2.89	.90	
농업기계화 시설현대화 지원	2.85	수도작	350	2.81	.89	-1.12
		그외	400	2.88	.96	
전문농업인력육성	2.92	수도작	350	2.97	.90	1.23
		그외	400	2.88	.95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2.93	수도작	350	3.04	.89	2.77**
		그외	400	2.86	.91	
농산물 안전성 고품질화 지원	2.92	수도작	350	2.92	.88	.20
		그외	400	2.91	.94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2.83	수도작	350	2.82	.84	.17
		그외	400	2.81	.95	
재해보험 등 경영안정 지원	2.71	수도작	350	2.68	.98	-.56
		그외	400	2.73	1.02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증대	2.77	수도작	350	2.76	.92	-.28
		그외	400	2.78	1.00	
교육여건 및 의료서비스 확충	2.75	수도작	350	2.77	.99	.57
		그외	400	2.73	.99	

주: *p<.05, **p<.01, ***p<.001

4.2. 농업·농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을 동시에 비교하기 위하여 순서형 로짓 모형을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는 기존

문헌에 나타난 변수와 조사된 정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가정하여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연령, 학력, 농업관련 교육 횟수, 소득수준, 소유농지 규모, 농업유형(수도작, 특작, 과수, 전작, 축산, 시설원예), 농가의 위치(평야지대, 산간지대, 준산간지대, 도시근교), 최근 5년간 보조금 수혜여부 등 9개 분야에 대한 16개 변수가 사용되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정책과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하여는 직접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 농업 실천여부와 성별 변수를 각각 추가하였다.

성격이 서로 다른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 설명변수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우나 대체적인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농업·농촌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젊은 농업인들은 의욕이 왕성하여 정책당국에 대한 요구도 높을 수 있으며, 요구가 높을수록 불만도 많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력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학력의 농업인들은 정보를 습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우월할 수 있으므로 정책들을 잘 활용하고 만족도 또한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농업관련 교육을 받은 농가는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소득과 농지규모는 정책만족도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유형별로 정책만족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작, 특용작물, 과수, 전작, 축산, 시설원예로 분류하여 정책만족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고찰하였다. 농가의 위치에 따라 농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평야지대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만족도는 우수한 농업경영 여건으로 인해 산간지대, 준산간지대, 도시근교 농업인의 만족도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어떤 형태로든 농업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정책적 혜택을 받았으므로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정책에 대한 만족도

는 영향의 방향이 미지수이며, 여성농업인의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또한 영향을 방향을 판별하기 어렵다.

표본의 특성을 보면 분석대상 표본 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51세이고,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농업인이 76%였으며, 평균 농업관련 교육 횟수는 약 4회였다. 연간소득은 1,000만원 간격으로 그룹화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1,001만원~2,000만원의 소득을 나타내는 그룹이 31.5%(236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평균 소유농지는 2.39ha였으며, 전년도 최고 판매농사가 수도작인 농가가 47%로 거의 절반정도였다. 분석대상 농가의 위치를 살펴보면 평야지대 28%, 산간지대 24.7%, 준산간지대 32.3%, 도시근교 10.1%, 나머지는 어촌지역 등 기타 지역으로 4.9%이다. 최근 5년간 농업관련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30.4%였고, 친환경 인증을 통해 농축산물을 출하한 농가는 37.1%였으며, 남성 응답자가 80.8%였다(Table 3).

〈Table 3〉 설명 변수의 기본 통계

변수	설명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령	연령/10	5.096	1.021	2.5	9.6
학력	고졸이상=1, 그 외 =0	0.765	0.424	0	1
농교육	농업관련 교육 횟수	3.860	4.529	0	50
소득	농가연간소득1,000만원 이하=1, 1,001~2,000만원=2, 2,001~3,000만원=3, 3,001~4,000만원 =4, 4,001~5,000만원=5, 5,001만원 이상=6	2.836	1.331	1	6
농지	소유농지(ha)	2.391	3.816	0	49.6
수도농	최고판매액: 수도작=1, 그 외=0	0.467	0.499	0	1
특작농	최고판매액: 특용작물=1, 그 외=0	0.093	0.291	0	1
과수농	최고판매액: 과수=1, 그 외=0	0.115	0.319	0	1
전작농	최고판매액: 노지 전작물=1, 그 외=0	0.084	0.278	0	1

축산농	최고판매액: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1, 그 외=0	0.104	0.305	0	1
시설농	최고판매액: 서설작물(토마토, 오이, 딸기, 화훼 등)=1, 그 외=0	0.077	0.267	0	1
평야	농가의 위치: 평야지대=1, 그 외=0	0.280	0.449	0	1
산간	농가의 위치: 산간지대=1, 그 외=0	0.247	0.431	0	1
준산간	농가의 위치: 준산간지대=1, 그 외=0	0.323	0.468	0	1
근교	농가의 위치: 도시근교=1, 그 외=0	0.101	0.302	0	1
보조금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받음=1, 그 외=0	0.304	0.460	0	1
친환경	친환경 인증 출하 농축산물=1, 그 외=0	0.371	0.483	0	1
남성	남성=1, 여성=0	0.808	0.394	0	1

〈Table 4〉는 순서형 로짓모형 분석결과이다. 순서형 로짓 모형에서 회귀계수 β 에 대한 해석은 설명변수의 단위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log-odds 추정치로 변화의 방향과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 회귀계수를 지수화한 값은 proportional odds ratio인데 이는 모델에 포함된 다른 변수가 불변일 때, 연속적인 설명변수의 경우 1단위 증가에 따른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에 대비한 매우 만족의 odds의 크기를 측정하며, 또한 매우 불만족에 대비한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의 odds의 크기를 측정한다.

각 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농지은행 사업은 소유 농지가 많을수록 정책 만족도가 높은 반면 산간지대에 위치한 농가는 만족도가 낮았다. 영농규모화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는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이 높은 그룹일수록 만족도가 낮았으며, 고등학교 이상을 교육을 받은 농업인의 경우,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의 경우 만족도가 낮았다. 그러나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최근 5년 내에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매우 불만족~만족” 대비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연령이 10살 증가함에 따라

0.87배, 소득이 1,000만원 많아질수록 0.89배,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쳤을 경우에는 0.69배, 농가의 위치가 산간지역일 경우 0.35배 감소한 반면, 소유농지가 1ha 증가함에 따라 1.09배, 보조금을 수령한 경험 이 있는 농가는 1.4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안정 직불제의 만족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낮았으며,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 역시 만족도가 낮았다. 쌀직불제는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은 그룹일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나, 농업관련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만족도가 낮았으며, 수도작농가,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 준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 도시근교에 위치한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PC 유통기능활성화 및 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나,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농업관련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소득이 높은 그룹일수록, 산간 지대에 위치한 농가에서 만족도가 낮았으며, 친환경 농축산물을 인증 출하하는 농가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교류활성화대책은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반면 산간지역과 준산간 지역 농가는 만족도가 낮았다. 농업인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은 그룹일수록 만족도가 낮았으며, 수도작 농가,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서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만족도를 보면 소유농지가 많은 그룹에서는 만족도가 높았으나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 남성 응답자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보전 직불제의 경우 수도작 농가, 전작물 농가, 시설원예농가, 평

야지역, 산간지역, 준산간 지역, 도시근교에 위치한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서 모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축산농가와 시설원예농가, 준산간 지대에 위치한 농가는 만족도가 낮았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의 만족도는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농가, 전작 농가, 축산농가에서 만족도가 낮았으며, 농업기계화 시설현대화지원 사업의 경우 수도작 농가, 축산농가, 산간지역 거주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전문 농업인력육성의 경우 소유 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나 과수농가, 전작농가, 축산농가, 시설원예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농업기술 개발·보급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낮았으며,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전작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안정성 및 고품질화 지원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소유면적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전작 농가 축산농가, 시설원예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산지유통혁신 정책에 대하여는 연령이 낮을수록, 농업관련 교육 횟수가 작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산간지대, 준산간 지대 거주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만족도가 낮았다.

재해보험 등 경영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산간지대, 준산간지대, 도시근교 거주 농가에서 만족도가 낮았으며,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가 만족도가 낮았다.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증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나, 전작농가, 축산농가, 평야지대와 산간 및 준산간 거주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교육여건 및 의료서비스 확충에 대해서는 산간 및 준산간지역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가 만족도가 낮았다.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농업관련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낮았으며,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높았다.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농가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서도 만족도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2개 농업·농촌 정책의 만족도와 설명변수의 관계를 요약하면, 연령은 1개 정책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7개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1개 정책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2개 정책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농업관련 교육 횟수는 5개 정책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5개 정책의 만족도에 부(-)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소유농지구모는 11개 정책 만족도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재배 작목이 수도작, 전작, 축산, 또는 시설원예일 경우 대체로 정책 만족도와 부(-)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거주 지역이 평야지대나 도시근교보다 산간지대나 준산간지대인 경우 정책만족도와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산간지대 농업인인 경우 22개 정책가운데 17개 정책의 만족도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보조금 수혜를 받은 경우 역시 14개 정책에 대해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순서형 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농업·농촌 정책 민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	연령	학력	농교육	소득	농지	수도농	특작농	과수농	전작농	축산농	시설농	평야	산간	준산간	근교	보조금	친환경/농성	LR χ^2
농지은행사업 β	.027	(.023)	-.012	(-.039)	.043**	-.138	.044	(.324)	(.300)	-.116	.063	.043	.090	-.676*	.073	.144		34.18***
Std. Err.	(.073)	(.171)	(.017)	(.060)	(.020)	(.288)	(.352)	(.334)	(.300)	(.348)	(.356)	(.332)	(.342)	(.333)	(.377)	(.154)		
Odds Ratio	0.940	0.959	0.974	0.939	1.045	0.761	1.030	0.952	0.967	1.000	1.238	0.825	0.424	0.939	0.828	1.142		
영농규모화사업 β	-.138**	(-.377**)	-.008	(-.110*)	.088***	-.451	-.022	.151	-.339	-.413	-.077	-.422	-.1058***	-.337	-.169	.361**		58.24***
Std. Err.	(.070)	(.168)	(.016)	(.057)	(.021)	(.285)	(.350)	(.335)	(.357)	(.343)	(.339)	(.334)	(.343)	(.334)	(.372)	(.152)		
Odds Ratio	0.871	0.686	0.992	0.886	1.092	0.637	0.912	1.163	0.713	0.661	0.926	0.656	0.347	0.714	0.845	1.435		
맞춤형교육 β	.055	(.157)	-.018	(.050)	.022	-.045	.365	-.228	.302	.049	-.536	.094	-.032	-.155	.623*	-.139		27.74**
Std. Err.	(.071)	(.168)	(.015)	(.057)	(.019)	(.275)	(.341)	(.329)	(.348)	(.333)	(.349)	(.326)	(.333)	(.327)	(.369)	(.148)		
Odds Ratio	1.056	1.170	0.982	1.062	1.022	0.955	1.441	0.796	1.353	1.051	0.585	1.099	0.969	0.856	1.864	0.870		
소득안정직불제 β	-.015	(-.282)	-.010	(-.106*)	.015	-.310	.193	.267	-.334	.071	-.159	-.304	-.811**	-.380	-.111	-.207		32.84**
Std. Err.	(.071)	(.171)	(.016)	(.058)	(.019)	(.291)	(.352)	(.338)	(.361)	(.346)	(.354)	(.337)	(.346)	(.339)	(.380)	(.150)		
Odds Ratio	0.985	0.769	0.990	0.889	1.015	0.734	1.213	1.306	0.716	1.073	0.853	0.738	0.445	0.677	0.885	0.813		
쌀직불제 β	-.131*	(-.127)	-.016	(-.110**)	.023	-.197	.166	.111	-.467	.110	-.258	-.290	-.707**	-.490	-.331	-.134		26.13**
Std. Err.	(.069)	(.169)	(.015)	(.056)	(.022)	(.274)	(.338)	(.326)	(.349)	(.329)	(.335)	(.312)	(.322)	(.316)	(.356)	(.148)		
Odds Ratio	0.877	0.881	0.984	0.886	1.023	0.821	1.180	1.118	0.627	1.117	0.773	0.748	0.493	0.613	0.718	0.874		
농촌종합개발 β	-.010	(-.052)	-.028*	(-.044)	.055***	-.560*	.269	-.345	-.861**	-.480	-.605	-.473	-.1179***	-.808***	-.731**	-.310**		47.45***
Std. Err.	(.072)	(.172)	(.015)	(.058)	(.021)	(.290)	(.363)	(.348)	(.373)	(.351)	(.369)	(.327)	(.336)	(.328)	(.371)	(.150)		
Odds Ratio	0.991	0.949	0.972	0.957	1.056	0.571	1.309	0.708	0.423	0.613	0.546	0.623	0.308	0.446	0.481	0.734		

정책	연령	학력	농교육	소득	농지	수도농	특작농	과수농	전작농	축산농	시설농	평야	산간	중산간	근교	보조금	전환경/담양	LR χ^2
RPC 황성화 β	-0.049 (.069)	1.37 (1.16)	-0.24 (0.15)	-0.02 (0.57)	0.61*** (0.19)	-0.37 (.288)	.351 (.354)	-0.54 (.336)	-0.224 (.355)	-0.376 (.345)	-0.497 (.357)	.122 (.338)	-0.734** (.347)	-0.065 (.339)	-0.171 (.379)	-0.334** (.153)		46.36***
Std. Err.																		
Odds Ratio	0.934	1.147	0.976	0.912	1.052	0.714	1.420	0.947	0.799	0.686	0.608	1.129	0.480	0.937	0.843	0.716		
전환농업 β	-0.067 (.071)	1.38 (1.16)	-0.04* (0.15)	-0.046* (0.58)	0.61 (0.22)	-0.434 (.298)	.286 (.359)	.441 (.351)	-0.335 (.365)	-0.210 (.333)	.303 (.300)	.178 (.336)	-0.619* (.343)	.073 (.336)	-0.112 (.374)	-0.029 (.152)	0.444*** (.151)	64.61***
Std. Err.																		
Odds Ratio	0.935	1.148	0.967	0.908	1.031	0.648	1.331	1.554	0.715	0.810	1.354	1.195	0.539	1.076	0.894	0.971	1.559	
도농교류활성화 β	-0.114 (.071)	1.34 (1.17)	-0.11 (0.15)	-0.050 (0.58)	0.049** (0.19)	-0.259 (.293)	.112 (.358)	.339 (.346)	-0.456 (.361)	-0.323 (.330)	-0.492 (.367)	-0.529 (.341)	-0.667* (.347)	-0.617* (.341)	-0.330 (.381)	-0.213 (.150)		28.10**
Std. Err.																		
Odds Ratio	0.882	1.143	0.989	0.951	1.050	0.772	1.119	1.403	0.634	0.724	0.611	0.589	0.513	0.539	0.719	0.808		
농업인복지증진 β	-0.004 (.070)	-0.226 (1.17)	-0.01** (0.15)	-0.145*** (0.57)	0.026 (0.23)	-0.484* (.290)	.232 (.351)	-0.182 (.339)	-0.518 (.362)	-0.494 (.340)	.120 (.330)	.004 (.330)	-0.567* (.340)	.114 (.328)	.194 (.376)	-0.441*** (.149)		58.63***
Std. Err.																		
Odds Ratio	0.996	0.798	0.970	0.865	1.027	0.616	1.286	0.833	0.586	0.610	1.127	1.004	0.567	1.121	1.214	0.643		
여성농업인육성 β	.118* (.071)	.444*** (1.17)	-0.17 (0.16)	-0.041 (0.59)	0.045** (0.21)	-0.322 (.307)	.436 (.365)	-0.103 (.354)	-0.522 (.377)	-0.417 (.339)	-0.312 (.375)	-0.342 (.337)	-0.683** (.342)	-0.305 (.335)	-0.508 (.379)	-0.290* (.150)	-0.367** (.176)	35.54***
Std. Err.																		
Odds Ratio	1.126	1.559	0.983	0.959	1.046	0.725	1.546	0.987	0.583	0.659	0.732	0.710	0.545	0.674	0.632	0.771	0.683	
경관보전력복합 β	-0.084 (.072)	.251 (1.17)	-0.12 (0.16)	-0.032 (0.58)	0.06 (0.24)	-0.859*** (.302)	-0.122 (.362)	-0.421 (.347)	-0.720** (.374)	-0.747** (.355)	-0.682* (.365)	-0.762** (.335)	-1.407*** (.348)	-0.826** (.336)	-1.060*** (.380)	-0.308** (.152)		48.67***
Std. Err.																		
Odds Ratio	0.920	1.285	0.988	0.949	1.037	0.424	0.885	0.656	0.487	0.474	0.506	0.467	0.245	0.438	0.347	0.735		

정책	연령	학력	농교육	소득	농지	수동농	특작농	과수농	전작농	축산농	시정농	평야	산간	중산간	근교	보조금	편향성/모형	LR χ^2
농어촌주거개발 β	-0.158** (0.073)	-0.040 (0.173)	-0.025 (0.016)	0.037 (0.059)	0.047* (0.021)	-0.429 (0.309)	0.151 (0.370)	-0.571 (0.300)	-0.443 (0.377)	-1.135*** (0.363)	-1.178*** (0.379)	-0.301 (0.336)	-0.556 (0.345)	-0.756** (0.338)	-0.274 (0.380)	-0.067 (0.152)		49.54***
Std. Err.																		
Odds Ratio	0.854	0.961	0.976	1.038	1.048	0.651	1.163	0.565	0.642	0.321	0.308	0.740	0.573	0.470	0.760	0.935		
생산지반경비 β	-0.044** (0.073)	-0.229*** (0.175)	-0.004 (0.017)	-0.010 (0.059)	0.048 (0.022)	-0.524 (0.304)	-0.100 (0.371)	-0.513 (0.356)	-0.634* (0.376)	-0.612* (0.346)	-0.588 (0.354)	0.124 (0.346)	-0.457 (0.354)	-0.255 (0.346)	-0.119 (0.389)	-0.151 (0.154)		26.75**
Std. Err.																		
Odds Ratio	0.957	0.796	0.996	0.991	1.049	0.592	0.905	0.599	0.530	0.542	0.550	1.132	0.653	0.775	1.126	0.860		
기계-시설현대화 β	-0.020 (0.073)	-0.190 (0.174)	-0.006 (0.015)	-0.022 (0.060)	0.027 (0.023)	-0.523* (0.306)	-0.072 (0.372)	-0.303 (0.356)	-0.335 (0.378)	-0.680* (0.357)	-0.609 (0.381)	-0.359 (0.345)	-0.647* (0.353)	-0.359 (0.345)	-0.031 (0.386)	-0.429*** (0.153)		27.90**
Std. Err.																		
Odds Ratio	0.980	0.827	0.994	0.978	1.027	0.593	0.931	0.739	0.386	0.507	0.544	0.698	0.524	0.699	0.969	0.651		
전문농업인특유성 β	-0.006 (0.072)	-0.018 (0.174)	-0.004 (0.016)	-0.041 (0.059)	0.042** (0.022)	-0.377 (0.298)	-0.132 (0.384)	-0.889*** (0.350)	-0.653* (0.372)	-0.816** (0.358)	-0.703* (0.368)	-0.468 (0.336)	-0.636 (0.345)	-0.482 (0.336)	-0.405 (0.377)	-0.348** (0.153)		30.02**
Std. Err.																		
Odds Ratio	0.994	0.982	0.996	0.960	1.043	0.686	0.576	0.407	0.520	0.442	0.495	0.626	0.529	0.618	0.667	0.706		
농업기술보급 β	-0.201*** (0.073)	-0.101 (0.175)	0.015 (0.016)	-0.056 (0.060)	0.078*** (0.020)	0.218 (0.307)	0.146 (0.372)	-0.008 (0.354)	-0.305 (0.376)	-0.223 (0.363)	-0.721* (0.379)	0.118 (0.337)	-0.271 (0.344)	-0.184 (0.336)	0.346 (0.377)	-0.256* (0.154)		55.47***
Std. Err.																		
Odds Ratio	0.818	1.106	1.015	0.945	1.081	1.244	1.157	0.907	0.674	0.800	0.486	1.126	0.783	0.832	1.413	0.774		
농산물안전성 β	-0.125* (0.072)	-0.077 (0.178)	-0.020 (0.016)	0.066 (0.060)	0.041* (0.022)	-0.395 (0.313)	0.006 (0.380)	-0.385 (0.365)	-0.655* (0.380)	-0.758** (0.365)	-0.732* (0.383)	0.459 (0.341)	-0.263 (0.346)	-0.115 (0.338)	0.251 (0.379)	-0.306*** (0.155)		42.13***
Std. Err.																		
Odds Ratio	0.882	1.081	0.980	1.057	1.042	0.674	1.026	0.680	0.509	0.468	0.481	1.583	0.789	0.891	1.286	0.673		

정책	연령	학력	농교육	소득	농지	수도농	특작농	과수농	전작농	축산농	시정농	평야	산간	중산간	근교	보조금	친환경/남양	LR χ^2
산지수통회신 β	-0.122*	0.106	-0.02*	0.010	0.012	0.082	0.340	1.45	0.040	-0.384	-0.167	-0.353	-0.823**	-0.631*	-0.288	-0.424*		31.90***
Std. Err.	(.073)	(.176)	(.016)	(.059)	(.021)	(.317)	(.385)	(.365)	(.386)	(.389)	(.331)	(.350)	(.358)	(.351)	(.394)	(.153)		
Odds Ratio	0.885	1.112	0.972	1.010	1.012	1.086	1.405	1.156	1.041	0.681	0.847	0.703	0.493	0.532	0.765	0.655		
재해보험 β	-0.088	-0.139	-0.010	-0.051	0.022	-0.288	0.313	0.084	-0.478	-0.766**	-0.464	-0.243	-0.917***	-0.732**	-0.731**	-0.549***		51.22***
Std. Err.	(.070)	(.168)	(.016)	(.059)	(.023)	(.305)	(.372)	(.351)	(.373)	(.358)	(.372)	(.332)	(.341)	(.333)	(.373)	(.150)		
Odds Ratio	0.906	0.870	0.990	0.950	1.023	0.750	1.367	1.087	0.620	0.465	0.629	0.785	0.400	0.481	0.481	0.578		
농위소득 β	-0.112	0.082	-0.019	-0.064	0.042*	-0.225	0.325	0.207	-0.640*	-0.766**	-0.399	-0.653**	-1.179***	-0.678**	-0.572	-0.416**		50.10***
Std. Err.	(.072)	(.170)	(.016)	(.059)	(.023)	(.302)	(.370)	(.353)	(.367)	(.358)	(.367)	(.334)	(.343)	(.333)	(.373)	(.152)		
Odds Ratio	0.894	1.085	0.981	0.938	1.043	0.798	1.384	1.230	0.527	0.465	0.671	0.520	0.308	0.508	0.554	0.660		
교육외표 β	.001	-0.189	-0.020	-0.042	0.010	-0.143	-0.052	-0.379	-0.300	-0.114	-0.505	-0.389	-0.582*	-0.590*	-0.491	-0.385**		22.52
Std. Err.	(.071)	(.171)	(.016)	(.059)	(.021)	(.302)	(.364)	(.350)	(.374)	(.358)	(.370)	(.342)	(.348)	(.340)	(.388)	(.151)		
Odds Ratio	1.001	0.828	0.980	0.959	1.011	0.866	0.949	0.685	0.741	0.892	0.588	0.692	0.559	0.555	0.612	0.674		
No. of observation for all models	750																	

주: * p<0.10, ** p<0.05, *** p<0.01

4.3. 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선호

4.3.1. 선호 정책

농업인들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 상태에서의 만족을 설명하나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정책은 만족도와는 다를 수 있으며, 정책 입안에서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하다. 농업인들의 농업·농촌 22개 농업·농촌 정책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정책을 설문한 결과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11.3%로 가장 높았으며, 친환경 농업 9.1%, 농지은행사업 8.93%, 농업인 복지 증진 8.5%,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교육 8.4%,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8.4%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 나타난 이유는 수도작 농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의 주작목(수도작, 그 외)에 따라서 농업·농촌 정책 가운데 선호 정책을 비교한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그룹의 선호 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작을 경영하는 농업인은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가장 선호 하고, 다음으로 농지은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그 외의 작목을 경영하는 농가에서는 농업인 복지 증진, 친환경농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세 이하에서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 영농규모화, 소득안정 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농어촌 주택 개량, 경관보전 직불제, 전문농업인력 육성, 농산물 안전성 고품질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40대 연령층에서는 친환경 농업, 농업인 복지 증진, 소득안정 직불제 순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업기계 현대화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은 선호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연령층의 정책 선호도에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농지은행, 친환경 농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농어촌 주택 개량,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소득안정 직불제, 농업인 복지 증진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농업유형 및 연령에 따른 선호 농업·농촌 정책

단위: 명(%)

구분	선호정책	농업유형		연령			
		수도작	그외	40세 이하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농지은행	67(8.93)	39(11.1)	28(7.0)	10(7.9)	16(6.7)	33(12.1)	8(7.1)
영농규모화	53(7.07)	31(8.9)	22(5.5)	12(9.5)	19(7.9)	17(6.3)	5(4.4)
수준별 맞춤형 교육	63(8.40)	28(8.0)	35(8.8)	13(10.3)	21(8.8)	20(7.4)	9(8.0)
소득안정 직불제	63(8.40)	28(8.0)	35(8.8)	11(8.7)	22(9.2)	15(5.5)	15(13.3)
쌀소득보전 직불제	85(11.33)	63(18.0)	22(5.5)	11(8.7)	20(8.4)	38(13.8)	16(14.2)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7(4.93)	14(4.0)	23(5.8)	4(3.2)	17(7.1)	13(4.8)	3(2.7)
RPC유통 기능 활성화	42(5.60)	24(6.9)	18(4.5)	5(4.0)	15(6.3)	17(6.3)	5(4.4)
친환경농업	68(9.07)	27(7.7)	41(10.3)	8(6.3)	27(11.3)	23(8.5)	10(8.8)
도농교류 활성화	30(4.00)	13(3.7)	17(4.3)	6(4.8)	9(3.8)	6(2.2)	9(8.0)
농업인 복지 증진	64(8.53)	19(5.4)	45(11.3)	7(5.6)	23(9.6)	22(8.1)	12(10.6)
여성농업인 육성	29(3.87)	10(2.9)	19(4.8)	10(7.9)	8(3.3)	6(2.2)	5(4.4)

경관보전 직불제	17(2.27)	5(1.4)	12(3.0)	1(8)	8(3.3)	4(1.5)	4(3.5)
농어촌 주택 개량	11(1.47)	3(9)	8(2.0)	1(8)	6(2.5)	3(1.1)	1(9)
농업생산기 반 정비	13(1.73)	3(9)	10(2.5)	2(1.6)	1(4)	7(2.6)	3(2.7)
기계화 현대화 지원	21(2.80)	9(2.6)	12(3.0)	6(4.8)	2(8)	12(4.4)	1(9)
전문농업인 력 육성	14(1.87)	4(1.1)	10(2.5)	1(8)	4(1.7)	6(2.2)	3(2.7)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10(1.33)	3(9)	7(1.8)	3(2.4)	2(8)	4(1.5)	1(9)
농산물 안전성 고품질	11(1.47)	4(1.1)	7(1.8)	1(8)	3(1.3)	5(1.8)	2(1.8)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4(5.3)	-	4(1.0)	-	2(8)	2(7)	-
재배보험· 경영안전지 원	18(2.40)	5(1.4)	13(3.3)	3(2.4)	5(2.1)	10(3.7)	-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14(1.87)	9(2.6)	5(1.3)	4(3.2)	6(2.5)	3(1.1)	1(9)
교육여건· 의료서비스 확충	16(2.13)	9(2.6)	7(1.8)	7(5.6)	3(1.3)	6(2.2)	-
합계	750 (100.0)	350 (100.1)	400 (100.6)	126 (100.0)	239 (99.9)	272 (100.4)	113 (100.0)

4.3.2. 도움이 된 정책

선호하는 정책과는 별개로 실제 농가에 어떠한 정책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설문하였다.

22개 농업·농촌 정책가운데 가장 도움이 된 사업은 무엇이었는가를 설문한 결과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친환경 농업, 쌀소득보전 직불제,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농지은행 사업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Table 6). 주작목에 따라 도움이 된 사업에 대한 생각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수도작이 주작목인 농업인은 쌀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 정책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된 사업이었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친환경농업정책이 가장 도움이 된 사업이었다고 응답하였다(Table 6).

농업인에게 도움이 된 사업은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업을 살펴보면, 40세 이하에서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 쌀소득보전 직불제, 소득안정 직불제, 친환경농업, 40대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 친환경농업, 쌀소득보전 직불제, 50대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 쌀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 60대는 소득안정 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 61세 이상은 소득안정 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6〉 주작목 및 연령에 따른 도움이 된 농업·농촌 정책

단위: 명(%)

구분	도움정책	농업유형		연령			
		수도작	그외	40세 이하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농지은행	46(6.13)	23(6.6)	23(5.8)	5(4.0)	17(7.1)	19(7.0)	5(4.4)
전업농 영농규모화	47(6.27)	28(8.0)	19(4.8)	9(7.1)	22(9.2)	10(3.7)	6(5.3)
수준별 맞춤형 교육	95(12.67)	32(9.1)	63(15.8)	14(11.1)	37(15.5)	37(13.6)	7(6.2)
소득안정 직불제	46(6.13)	24(6.9)	22(5.5)	(11)8.7	10(4.2)	7(2.6)	18(15.9)

쌀소득보전 직불제	85(11.33)	52(14.9)	33(8.3)	12(9.5)	23(9.6)	36(13.2)	14(12.4)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27(3.60)	10(2.9)	17(4.3)	4(3.2)	11(4.6)	7(2.6)	5(4.4)
RPC유통기능 활성화	34(4.53)	16(4.6)	18(4.5)	3(2.4)	10(4.2)	14(5.1)	7(6.2)
친환경농업	88(11.73)	45(12.9)	43(10.8)	11(8.7)	34(14.2)	33(12.1)	10(8.8)
도농교류활성 화	19(2.53)	4(1.1)	15(3.8)	5(4.0)	4(1.7)	6(2.2)	4(3.5)
농업인 복지 증진	42(5.60)	14(4.0)	28(7.0)	8(6.3)	10(4.2)	19(7.0)	5(4.4)
여성농업인 육성	16(2.13)	6(1.7)	10(2.5)	2(1.6)	5(2.1)	7(2.6)	2(1.8)
경관보전 직불제	20(2.67)	9(2.6)	11(2.8)	4(3.2)	8(3.3)	6(2.2)	2(1.8)
농어촌 주택 개량	27(3.60)	19(5.4)	8(2.0)	2(1.6)	11(4.6)	10(3.7)	4(3.5)
농업생산기반 정비	4(.53)	1(.3)	3(.8)	-	1(.4)	2(.7)	1(.9)
기계화 현대화 지원	22(2.93)	6(1.7)	16(4.0)	2(1.6)	5(2.1)	14(5.1)	1(.9)
전문농업인력 육성	17(2.27)	12(3.4)	5(1.3)	3(2.4)	3(1.3)	7(2.6)	4(3.5)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23(3.07)	10(2.9)	13(3.3)	5(4.0)	4(1.7)	12(4.4)	2(1.8)
농산물 안전성 고품질	20(2.67)	15(4.3)	5(1.3)	4(3.2)	5(2.1)	7(2.6)	4(3.5)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16(2.13)	6(1.7)	10(2.5)	5(4.0)	6(2.5)	3(1.1)	2(1.8)
재해보험·경 영안전지원	14(1.87)	4(1.1)	10(2.5)	2(1.6)	4(1.7)	4(1.5)	4(3.5)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13(1.73)	3(9)	10(2.5)	5(4.0)	4(1.7)	2(7)	2(1.8)
교육여건·의 료서비스 확충	29(3.87)	11(3.1)	18(4.5)	10(7.9)	5(2.1)	10(3.7)	4(3.5)
계	750 (100)	350 (100.1)	400 (100.6)	126 (100.1)	239 (100.1)	272 (100)	113 (99.8)

4.3.3. 최우선 지원 희망 정책

조사대상 농가에게 22개 농업·농촌 정책 가운데 지원이 가장 시급한 정책을 설문한 결과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농업인의 복지증진,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농지은행 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7). 수도권 농업인과 그 외의 작목을 주로 재배하는 농업인의 우선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 모두 최우선 지원정책은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하에서는 소득안정 직불제를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정책으로 선택한 반면, 여성농업인 육성, 전문농업인력육성, 농산물 안전성 고품질화 정책,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등은 거의 선택하지 않았다. 41~50세에서도 소득안정 직불제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원 희망하는 정책으로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농업인 복지 증진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경관보전 직불제나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은 거의 선택하지 않았다. 51~60세에서도 소득안정 직불제, 농업인 복지 증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61세 이상에서는 소득안정 직불제 다음으로 친환경농업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전체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소득안정 직불제가 가장 최우선 정책이라고 생각하였고 농산물 안전성 고품질,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정책은 시급한 정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인이 지각하는 농업·농촌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정책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까다로운 지

원규정과, 복잡한 절차,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지원액 등을 지목하였으나,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무엇보다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확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주작목 및 연령에 따른 최우선 지원 희망 농업·농촌정책
단위: 명(%)

구분	최우선 정책	농업유형		연령			
		수도작	그외	40세 이하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농지은행	45(6.0)	23(6.6)	22(5.5)	12(9.5)	16(6.7)	14(5.1)	3(2.7)
전업농 영농규모화	48(6.4)	23(6.6)	25(6.3)	9(7.1)	17(7.1)	18(6.6)	4(3.5)
수준별 맞춤형 교육	37(4.9)	18(5.1)	19(4.8)	3(2.4)	14(5.9)	10(3.7)	10(8.8)
소득안정 직불제	138(18.4)	67(19.1)	71(17.8)	26(20.6)	35(14.6)	62(22.8)	15(13.3)
쌀소득보전 직불제	45(6.0)	25(7.1)	20(5.0)	9(7.1)	17(7.1)	17(6.3)	2(1.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42(5.6)	17(4.9)	25(6.3)	3(2.4)	13(5.4)	17(6.3)	9(8.0)
RPC유통기능 활성화	34(4.5)	21(6.0)	13(3.3)	2(1.6)	12(5.0)	16(5.9)	4(3.5)
친환경농업	39(5.2)	25(7.1)	14(3.5)	5(4.0)	12(5.0)	9(3.3)	13(11.5)
도농교류활성화	33(4.4)	13(3.7)	20(5.0)	11(8.7)	5(2.1)	7(2.6)	10(8.8)
농업인 복지 증진	82(10.9)	37(10.6)	45(11.3)	8(6.3)	30(12.6)	33(12.1)	11(9.7)
여성농업인 육성	19(2.5)	10(2.9)	9(2.3)	1(0.8)	8(3.3)	9(3.3)	1(0.9)
경관보전 직불제	20(2.7)	5(1.4)	15(3.8)	3(2.4)	2(0.8)	9(3.3)	6(5.3)
농어촌 주택 개량	15(2.0)	10(2.9)	5(1.3)	4(3.2)	5(2.1)	4(1.5)	2(1.8)

농업생산기반 정비	20(2.7)	8(2.3)	12(3.0)	2(1.6)	7(2.9)	5(1.8)	6(5.3)
기계화 현대화 지원	28(3.7)	12(3.4)	16(4.0)	6(4.8)	8(3.3)	11(4.0)	3(2.7)
전문농업인력 육성	19(2.5)	10(2.9)	9(2.3)	1(8)	9(3.8)	8(2.9)	1(9)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18(2.5)	3(9)	16(4.0)	8(6.3)	2(8)	5(1.8)	4(3.5)
농산물 안전성 고품질	5(0.7)	3(9)	2(5)	1(8)	3(1.3)	1(4)	-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15(2.0)	4(1.1)	11(2.8)	6(4.8)	5(2.1)	1(4)	3(2.7)
재해보험·경영 안전지원	21(2.8)	7(2.0)	14(3.5)	3(2.4)	9(3.8)	7(2.6)	2(1.8)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9(1.2)	4(1.1)	5(1.3)	1(8)	3(1.3)	4(1.5)	1(9)
교육여건·의료 서비스 확충	17(2.3)	5(1.4)	12(3.0)	2(1.6)	7(2.9)	5(1.8)	3(2.7)
계	750 (100)	350 (100)	400 (100.6)	126 (100)	239 (99.9)	272 (100)	113 (100.1)

〈Table 8〉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단위: 명(%)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명(%)	정책 추진상의 개선점	명(%)
복잡한 절차	147(19.6)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 제고	85(11.3)
까다로운 지원 규정	205(27.3)	지원액이나 지원규모 확대	297(39.6)
지원대상선정의 불공정	101(13.5)	지원 대상 확대	99(13.2)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지원액	113(15.1)	정책 홍보 확대	82(10.9)
홍보부족	78(10.4)	절차 및 규정 간소화	143(19.1)
소수만 받고 있는 혜택	72(9.6)	기타	77(5.9)
기타	34(4.5)		
합계	750(100)	합계	750(100)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 대한 농업인 관점의 만족도와 선호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진단하고,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남북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에 포함된 22개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 대해 750명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교차분석, 분산분석, t-검정, 순서형 로짓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2개 농업·농촌 정책의 5점 리커트 척도 만족도는 2.71~3.09사이로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이 가운데 만족도가 높은 농업·농촌 정책은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농지은행사업, 친환경농업 순이었으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농촌 정책은

재해보험 등의 경영 안정 지원, 교육여건 및 의료서비스 확충, 경관보전 직불제,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증대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작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타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책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수도작 이외의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친환경농업, 농업인 복지 증진, 경관보전 직불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수도작을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은 그 외의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보다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형 로지모형을 이용하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업별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로 연령, 농업관련 교육 횟수, 소득수준, 수도작, 전작, 축산 또는 시설원에 농가, 산간지대 또는 준산간지대 농가, 농업보조금 수령 경험 등이 농업·농촌 정책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령 농가, 수도작, 전작, 축산 및 시설농가, 산간지대 및 준산간지대 농가를 대상으로 정책 만족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업관련 교육 횟수가 많은 농가와 농업보조금 수령 농가의 경우 오히려 정책 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유농지 규모가 유일하게 대체로 정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는데, 소유농지 규모가 클수록 전업농일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전업농의 농업·농촌 정책 만족도가 높다는 점은 정책입안 당국에는 고무적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22개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선호 정책과 도움이 된 정책,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정책을 설문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정책입안에 적용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농업인이 선호하는 정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 농지은행사업, 농업인 복지증진 등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농업인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 친환경농업,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정책은 소득안정직불제와 농업인 복지증진이었다. 한편, 복잡한 지원절차나 까다로운 지원규정이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지원규모확대와 지원절차 및 규정을 간소화 하는 것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의 만족도는 농업인 교육, 영농규모화 사업, 농지은행, 친환경농업,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등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선호도가 높은 정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 농지은행, 농업인 복지 증진 등이었으며, 지원이 시급한 정책은 소득안정직불제, 농업인 복지증진,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호도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 소득안정직불제, 농업인 복지증진 등을 농업인들이 높게 응답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의 특징은 모두 농가에게 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즉 농업인이 희망하는 정책은 농업인의 소득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받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사대상 농가의 소득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이다(조사대상 농가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농가가 46%를 차지하였음).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종 직접지불을 통한 소득보조는 소득 형평성을 실현하는 도구 일뿐, 자원의 재분배와 효율성을 실현시키지 못한다. 특히나 직접지불금은 농업과 농촌분야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업·농촌을 발전시키는 정책대안이 될 수 없다. 관건은 농업인의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는 소득보전 정책과 아울러 농업 본연의 생산과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농업인의 만족도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농업생산과 농업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시민과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22개나 되는 농업·농촌 정책 가운데, 설문 조사 과정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에 따라서는 생소하거나 들어보지 못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확한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제약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를 전체적으로 진단하였으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특히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정책가운데 어떠한 정책을 선호하고 지원받기를 희망하는지 비교 제시하는데 연구의 희소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정책별로 농업인이 생각하는 수정해야 하는 점이나 오류, 실정에 맞지 않거나 지향해야 할 방향 등을 설문함으로써 각 정책별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전남과 전북지역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대상의 제약이 있었으므로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 김동원, & 박혜진. (2009). 농업·농촌에 대한 2009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농정연구
속보 63.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태, & 배용규. (1997). 농업관련종사자들의 농업정책에 대한 기대 만족도에 관
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9(1), 203-225.
- 농식품부. (2010). 정책홍보 정책 포커스 (www.mifaff.go.kr).
- 박경옥, & 이하나. (2009). 농촌활성화사업 마을주민의 사업 참여도와 마을 환경변
화에 대한 만족도.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1(1), 57-66.
- 박은식, 최영창, 황대용, & 박덕병. (2007). 농촌리더십 교육의 효과 및 만족도 분
석. *농촌지도와 개발*, 14(2), 329-349.
- 손은호, & 박덕병. (2009). 농촌관광개발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농촌
관광연구*, 16(3), 68-82.
- 허주열, & 이성근.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특성에 관한 연구: 경
상북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3), 45-70.
- 홍은파. (2010). 여성농업인 영농교육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1), 49-79.
- Long, J. Scott. (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Orazem P. F., D. M. Otto, & M.A. Edelman. (1989). An Analysis of Farmers'
Agricultural Policy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1(4), 837-846.

Received 10 November 2013; Revised 25 November 2013; Accepted 5 December 2013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Satisfaction Level of Agricultural and Rural Polices

Seon-Ae Kim^a · Seung Tae Moon^b

^a Department of Food and Resource Economics,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136-701, Republic of Korea

^b Depart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255 Jungangro Suncheon city, Jeonnam, 540-950, Republic of Korea

Abstract

To investigate farmers' satisfaction level and factors influencing on various agricultural and rural policies, an interview survey has been carried out in Jeonnam and Jeonbuk agricultural area, and collected 750 survey questionnaires from farmers. Satisfaction level was low in average ranging from 2.71 to 3.09 in five point Likert-scale on 22 agricultural-rural related policies.

Ordered logit model results showed that satisfaction level decreased when farmers are older, had higher income, and had higher number of attendance in agricultural education programme. In addition, satisfaction level decreased when farms had main source of income from rice farming, dry-field farming, livestock farming, or facility horticulture. Lower satisfaction level was also related to location of farm. On the contrary, satisfaction level increased when the farmer had greater owned land.

Among 22 agricultural and rural policies, practices that farmers prefer include Direct Payment for Rice Farming Income Compensation, Environment-Friendly Farming Service, Farmland Banking Services in order. Since direct payment policies that

farmers prefer may not contribute in development of agriculture, policies can induce both farm income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may increase farmer satisfaction level and finally resolve the income gap between the urban workers and farmers.

key words : Agricultural-rural Policies, Ordered Logit Model, Satisfaction Level



Seon-Ae Kim is a BK21Plus research professor of Department of Food and Resource Economics, Korea University,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production economics, environmental economics and farm management. Address: Department. of Food and Resource Economics,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136-701, Republic of Korea
e-mail) sakim@korea.ac.kr, phone) 82-(0)2-3290-3485



Seung Tae Moon is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are animal resource educ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Addres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255 Jungangro Suncheon city, Jeonnam, 540-950, Republic of Korea
e-mail) dream@sunchon.ac.kr phone) 82-(0)61-750-3356